



전주비전대, 비전체전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12~13일 이틀 간 교내 대운동장에서 제46회 비전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체전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350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우렁찬 함성 속에 막을 열었다. 행사 기간 동안 22개학과에서 2000여 명이 넘는 재학생들이 참여해 축구, 족구, 농구, 계주, 줄다리기, 피구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여울'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이번 체전에서는 'Secret classroom' (방탈출), 에어비투스 닥트, 길거리 노래방, 워터슬라이드, ESG 캠페인 (랜덤돌핀), OX 퀴즈 및 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장은성 기자



대한적십자 완산지구, 어르신께 누룽지 200팩 기탁

대한적십자사 완산지구는 12일 삼천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홀로어르신들을 위한 누룽지 200팩(5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누룽지 200팩은 대한적십자사 5.8 행사에서 전달받은 물품으로 관내 홀로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박정자 전회장은 2021년도에도 누룽지 380팩을 후원한 바 있으며, 지난 2020년도에는 삼천2동 저소득세대를 위해 백미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완산지구 박정자 전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저소득 홀로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촌 집 고쳐주기 전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윤중)는 12일 완주군 소양면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농촌 집 고쳐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솜동지복지재단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전주완주임실지사가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가 노후화된 주택에 살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간담회

남원시는 12일 공공부문 사례관리수행 담당팀장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8개 분야(통합사례, 노인맞춤돌봄, 아동통합, 방문건강, 의료급여, 자활사업, 중독관리통합, 정신건강) 공공부문 사례관리담당 팀장들이 개별사업들을 소개하는 한편 공공부문 사례관리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며, 2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들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8개 분야 공공부문 사례관리를 잘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스승의날 기념 정부포상·교육감 표창

근정포상 1명·옥조근정훈장 1명 등 총361명... 오는 17일 전수식

교육에 남다른 사랑감과 헌신으로 전북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 및 교육공무원이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을 받는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41회 스승의날을 맞아 유공 교원 361명에게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근정포상 1명, 옥조근정훈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11명, 교육감표창 242명이다. 먼저, 제11회 대한민국 스승상 근정포장을 받는 이리공고 김미숙 교사는 혁신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 문화 개선과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옥조근정훈장 받는 임실동중 정진진 교사는 학생들



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사제동행 산행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대통령표창은 전주효천초 이시은 교사·군산수송초 송윤희 교사·전주서곡중 이경숙 교사가, 국무총리표창은 진안중앙초 정세민 교사·상관초 장기영 교장·전주성심여중 권현호 교사가 수상한다. 장관상은 총 11명으로 분야별로는 교과지도 27명, 생활지도 27명, 진로 직업 23명, 교육혁신 23명, 평생복지 11명이다. 한편 대한민국 스승상 및 스승의날 유공 정부포상 표창자 전수식은 오는 17일 도교육청 5층 승남맞이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총, 교육공로자 표창 수여식 개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중)는 제41회 스승의날을 맞아 12일 회관에서 교육공로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 교육적 열정과 뜨거운 교육애로 제자사랑과 행복교육의 디딤돌을 실현하는데 헌신해 온 교원들을 표창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기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교육주관을 맞아 교과 및 생활지도, 교원단체활동 등 공적이 뚜렷한 교육자에 대한 특별공로상(2명), 부활한 사랑감으로 32년 이상 열정을 기울여 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122명), 헌신적인 노력으로 30년 이상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 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99명), 3%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가문의 교육명가(1가족),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회인사에 대한 독지상(1명) 등 각 부문별 교육공로자에 대해 표창을 했다. /장은성 기자

공공기관 홍보베테랑, '홍보 인수인계서' 출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손병훈 과장이 다년간의 공공기관 홍보 노하우를 담은 공공홍보 입문서 '홍보 인수인계서'를 도서출판 삼인행을 통해 12일 출간했다. 책에는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기관 등 홍보업무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노하우, 사례들이 담겼다. 특히 일반기업과 달리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자급자족이 없는 홍보방법을 찾아야 하는 공공부문 홍보종사자들의 애환도 기록했다. '홍보 인수인계서'는 시중의 홍보서적과는 달리 홍보의

한 분야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언론, SNS 글쓰기, 문서작성, 광고, 유튜브까지 공공홍보의 전 분야의 노하우를 자세히 수록했다. 저자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손병훈 과장은 "측량기술자로 입사해 10년 만에 난생 처음 홍보업무를 해야 했는데, 그때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공공홍보 종사자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출간소감을 밝혔다. 해당 도서는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등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촉

전주시 야호효자골든벨리스 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 박지현)는 최근 전주완주경찰서(서장박현수) 여성청소년과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실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촉과 함께 현관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현재 전주완주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집(아동인시보호소, 130개소)로 등하교길 등 아동의 범죄 취약한 장소에 위치해 범죄예방활동 분야에서 묵묵히 아동안전 도우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전주시에 15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방과후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등 양육 친화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야호효자골든벨리스 다함께돌봄센터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치재단이 전주시로부터 수탁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동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온 박지현 센터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촉의 기회로 아동의 안전한 돌봄에 기회를 가져 보람을 느낀다" 소감을 밝혔다. 박현수 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94명과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면밀한 공동체 운영 체계로 보다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격려했다. /김재훈 기자

신상윤 동물병원장, 전북대 수의대에 1000만원 기부

광주 분꽃동물병원 신상윤 원장(전북대 수의대 05학번)은 12일 모교를 찾아 수의대 발전과 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에 써달라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대는 이날 기념식을 열고 김동원 총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감사사를 표했다. 광주 출신으로 전북대 수의대를 졸업한 신 원장은 동물병원 개업 후 당시 교수님들에게 받았던 많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부로 보답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특히 대학 시절 사제사이가었던 현 안동춘 수의대 학장과의 인연이 이번 기부로 이어졌다. 신 원장은 "기부란 할 만한 형편과 관계없이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학창시절 받았던 많은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바라고, 특



히 학과 교수님들에게 조인을 많이 구하고 배울 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혁신동 씨엔알, 취약계층 위한 고급 화장품 후원

전주시 혁신동에 위치한 씨엔알코스메틱스(대표자 주선하)는 지난 8일 동 주민센터(동장 이상순)에 취약계층을 위해 400만 원 상당의 유기농 화장품을 기탁했다. 이날 기부한 화장품은 혁신동주민센터를 통해 혁신동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상순 혁신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주시는 씨엔알코스메틱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서학동 지사협, 영양 취약계층에 반찬 지원

전주시 서서학동(동장 전아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현중)는 12일 독거노인 등 식생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14세대를 대상으로 '외할머니 솜씨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외할머니 솜씨 반찬 나눔' 사업은 월 2회 정기적으로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사협위원들이 직접 만든 세 가지 반찬을 지원하며 안부와 생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송현중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이 담긴 반찬지원으로 정을 나누고, 관심이 필요한 이웃의 안부를 살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서학동의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교대, 진로·진학체험 재개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박병춘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청소년 대상 진로·진학 체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교대는 지난 10일과 12일 고창남중학교와 전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약 70여 명이 참여,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로·진학 체험은 학생들의 희망대로 학과 및 교육과정 안내, 입시설명 위주로 진행됐다. 또 VR 체험 등 대외 캠퍼스 투어로 학생들에게 미래형 첨단 교육환경을 보여줬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대학 홍보 영상 시청, 재학생과의 만남 시간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대학에 직접 와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교육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대학에서 입학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 말했다. 박병춘 총장은 "진로·진학 체험을 통해 우리 대학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미래 입학생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